

“한국 대학생 열정 세계에~”

미스터&미스 유니버시티 한국 대표 김선우씨

“한국 대학생들의 열정, 세계에 알릴게요” 세계 대학생들의 미(美)의 축제인 ‘제28회 미스터&미스 유니버시티’의 한국 대표로 선발된 김선우(여·22·부경대 경영학부 3학년)씨는 당차게 각오를 피력했다.



김씨는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미스터&미스 유니버시티(MMU) 세계대회 참가를 위한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 한국 대표로 뽑혔다.

김씨는 “보통 미인대회라고 하면 자신의 취업이나 출세를 위한 것이라는 선입견이 많은데 이번 대회를 통해 진정한 봉사의 의미가 뭔지 알게 됐고 참가자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무엇보다 바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경험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구촌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하고 세계적 시야를 지닌 캠퍼스 평화대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미스터&미스 유니버시티 세계대회는 오는 8월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다.

태극전사 훈련지 클래스고 찾은 ‘獨 월드컵 희망원정대’ 신철순 감독



“장애우들이 편견 없이 맘껏 축구를 즐길 수 있는 전용구장을 만드는 게 평생 꿈입니다”

29일 덕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06독일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맹훈련 중인 스킵클랜드 클래스고를 찾은 ‘2006 독일월드컵 희망원정대’ 신철순(61) 감독의 희망이다.

신철순(61) 감독이 이끄는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축구대표 10명과 임원 6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된 희망원정대는 지난 26일 한국을 떠나 아일랜드 더블린을 거쳐 이날 태극전사들이 훈련 중인 클래스고에 도착했다.

신 감독은 장애인축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혀 없던 지난 1988년 대한축구협회의 권유

“장애우 전용구장 건립, 평생의 꿈”

솔직·순박한 그들 모습에 흠뻑 빠져 19년째 ‘무보수’ 사령탑

(?)에 처음 사령탑을 맡은 뒤 장애우들의 솔직하고 순박한 모습에 흠뻑 빠져들어 벌써 19년째 ‘무보수’ 대표팀 사령탑을 놓지 못하고 있는 ‘정어리’ 감독.

신 감독은 “당시에는 장애인축구가 있는지도 모른 채 달력 감독직을 맡게 됐다”며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에서 5개월 합숙훈련 뒤 4위를 차지한 아쉬움 속에 장애우들과 함께 하다 보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고 웃음을 지었다.

신 감독은 축구 명문 중동고와 건국대를 거쳐 지난 1970년 양지팀에서 잠시 활약한 뒤 23년 동안 고등학교 축구팀의 감독으로 활동

했다. 허승표 한국축구연구소 이사장과 노홍섭 전 축구협회 전무, 이회택 축구협회 부회장 등이 축구동기다.

또 지난 1973년 진주구 감독 시절에는 당시 3학년이었던 조광래 전 FC서울 감독을 앞세워 전국대회 3관왕의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생활 결연 항상 장애우들이 함께 했고, 세계대회를 앞두면 현업인 고교 감독직을 그만두고 장애인축구대표팀 감독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되풀이해 왔다.

신 감독은 “몇년전 장모님께서 절에 점을 보러가셨더니 ‘주변에 장애인들이 많고 해외에

자주 나갈 운세’라는 점괘를 받아왔다”며 “욕심 없이 살고 있다. 장애우들이 편견 없이 맘껏 축구를 즐길 수 있는 전용구장을 만드는 게 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뇌성마비장애인축구대표팀은 지난 1998년 브라질 세계선수권대회와 2003년 아르헨티나 세계선수권대회에 연속 진출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강팀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활약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한뇌성마비장애인축구협회는 지난 2004년 9월 뒤늦게 맞을 올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28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더블린 장애인 대표팀과 평가전을 펼쳐 4-0으로 승리한 ‘2006 독일월드컵 희망원정대’는 앞으로 네덜란드 장애인 대표팀(6월5일) 및 독일 고교팀 축구팀(6월14일)과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이수만, 美 하버드대생에 ‘한류’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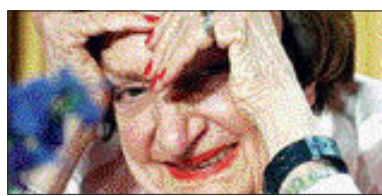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생 40여 명이 연례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이사로부터 ‘한류 경영 전략’을 배운다.

30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압구정동 SM엔터테인먼트 본사를 방문, 한류를 주제로 이수만 이사의 강의를 듣는다.

이들은 아시아 시장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이수만 이사의 노하우, 경제적 가치로서의 문화에 대한 견해 등을 듣는다.

원로 여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백악관은?



57년간 9명의 대통령 취재 헬렌 토머스 기자 책 발간

“역대 대통령들 언론 조작” 등 美 정부 문제 신랄 비판

백악관을 50년이 넘게 드나들었던 여기자가 바라본 미국 대통령은 어떤 모습일까. 기자는 대통령에게 불편한 질문을 해도 될까.

미국 백악관을 57년간 출입하며 존 F. 케네디 이후 9명의 대통령을 취재해 온 헬렌 토머스(여·85) 기자가 책을 썼다.

책 제목부터 심상찮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파수꾼이라고?(Watchdogs of Democracy?)’이라는 제목에서부터 미국 정부의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

해운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책 발간 후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토머스 기사는 “당신이 취재해 온 대통령들이 모두 언론을 교활하게 조작,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 했다”고 비판했으면서도 왜 매일 백악관 브리핑에는 갔는가”라는 질문에 “오늘 돌아가는 이야기를 따라잡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UPI통신의 백악관 출입기자로 일하다 지금은 허스트의 칼럼니스트로 일하는 그는 그동안 백악관 브리핑룸의

맨 앞줄에 앉았으며, 그가 첫 질문을 던지고 “감사합니다, 대통령”이라는 말로 회견을 끝내는 게 관례였다.

그는 조지 부시 대통령 1기 때 자신의 백악관 ‘고정석’이 사라졌을 때의 기분을 묻자 “그날이 2003년 3월6일이었다”면서 “뒷자리에 앉고 싶지 않았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

또 자신의 질문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던 부시 대통령을 상기시키면서 “부시 정부는 내가 담당했던 역대 정부중 가장 비밀이 많다”고 비판했다.

英 부총리 ‘섹스 스캔들 이어 크로케’ 궁지 몰려



젊은 여비서와 섹스 스캔들로 물의를 일으킨 존 프레스콧 영국 부총리가 이번에는 업무 시간에 크로케 경기를 즐기다가 들켜 다시 궁지에 몰렸다.

토니 블레어 총리가 미국을 방문 중인 지난 25일 프레스콧 부총리는 총리 부재중 대역을 맡아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받기 한 채 버킹엄셔의 시골 별장에서 다른 두 사람과 함께 크로케를 하는 모습이 언론의 카메라에 찍혔다. 프레스콧 부총리의 사진이 일요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집권 노동당 의원들은 노동당을 쇄신하고 유권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부총리가 물러나야 한다고 사립문을 제기했다고 영국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공 문공부 장관이 맡았던 바로 그 배역이다. 임 부회장은 ‘천년학’에서 ‘광대’ ‘홍보’ ‘수궁’ 등을 부른다.

임진택 민예총 부회장



‘천년학’ 주요 배역 말야

임진택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 부회장이 임진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 ‘천년학’(제작 KINO2)에 주요 배역으로 캐스팅돼 현재 촬영 중이다.

임 부회장은 ‘천년학’에서 주인공 송화과 동호의 의복 아버지 유

봉 역을 맡았다. ‘천년학’의 전편이라 할 수 있는 ‘서편제’에서 현 김명곤 문공부 장관이 맡았던 바로 그 배역이다. 임 부회장은 ‘천년학’에서 ‘광대’ ‘홍보’ ‘수궁’ 등을 부른다.

외국인 교수가 ‘한국 부모세대 삶’ 출간

한국외대 실라 컨웨이교수

광소 봉사활동 등을 통해 한국 사람을 몸소 실천해온 한 외국인 교수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겪은 한국 부모 세대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내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외대 영어학부 실라 컨웨이(여·54) 교수는 30일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군사독재 시절 등 힘들고 배고팠던 한국 부모 세대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한국인 제자들의 글을 묶어 ‘하늘을 나는 푸른 자전거’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삶의 역사’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책이 출간된 계기는 2000년 봄 컨웨이



교수가 대학에서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작문 강의를 맡으면서였다.

그는 한국과 정내 세대 차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고 학생들에게 부모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영어 에세이로 제출하게 하는 조금은 특별한 과제를 내주었다.

이런 주문에는 학생들에게 부모의 삶을 통해 조국의 역사와 가족의 뿌리·조상의 혼·그리고 그들로부터 이어 내려온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자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장일훈 前 치안본부장 별세



호남 출신 첫 경찰총수였던 장일훈씨가 지난 28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0세.

1927년 강진군 병영면 하교리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전신외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한 뒤 경찰에 첫 발을 내디뎠다.

고인은 48세에 호남 출신으로는 최초로 제2대 치안본부장에 취임했다.

이후 고인은 제주도지사, 산림청장 등을 거쳤다. 유족으로는 부인 전은주씨와 장남 연수씨, 차남 하수(쌍용에 파견돼 현지법인 사장)씨, 사위 박용구(금호전기 회장)씨, 사위 유성욱(성모 유안과 원장)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삼성동묘림이며 발인은 31일 오전 8시. (02)3410-6915



재독동포 응원단 ‘붉은 호랑이’ 공식 출범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독동포 응원단 ‘붉은 호랑이’ 공식 출범식에 참석한 한민족응원단원들이 선경성 응원단장의 출범사를 듣고 있다.

“7년만의 방문...조국 발전 놀라워”



29일 첫 내한 ‘쇼케이스’ 가진 한국계 싱어송라이터 수지 서

“7년 만의 방문인데 한국이 달라보게 발전해 정말 놀랐어요. 고국에 제 음악을 소개하게 돼 영광입니다.” 미국의 유명 음반사 소니뮤직의 레이블인 에픽레코드를 통해 데뷔해 화제가 된 한국계 여성 싱어송라이터 수지 서가 29일 서울 재즈클럽 ‘원스 인 어 블루 문’

에서 첫 내한 쇼케이스와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안트리오의 새 음반에 참여해 노래한 그는 이날 안트리오와 함께 쇼케이스 무대에 올라 그가 작곡한 데뷔 음반 수록곡 3곡을 소개했다.

“뉴욕의 클럽과 공연장에서 노래하면서 입소문이 퍼졌어요. 소개에 소개를 거쳐 바버라 스트라이샌드 등 유명 뮤지션과 함께 작업한 찰스 코플먼을 알게 됐어요. 그는 나를 위해 쇼케이스를 여러 차례 열어줬고 이것이 계기가 돼 세계적인 음반사인 에픽레코드와 전속 계약을 맺었죠.”

한국인으로서 뉴욕에서 음악 활동하는데 문제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음반만 들고 나를 한국인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놀랄 수 있는 건 장점이고 미국 음악 대중 가운데 아시아인의 비중이 적은 것은 단점인 것 같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음악”이라고 답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박전배(광주승병협회 회장)씨 장남 상훈(원주 MBC 기자)군 전익수(쌍학 대표)씨 장녀 정미양=6월 3일(토) 낮 12시30분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김현님씨 장남 양경완군 김판순씨 막내 박유순양=6월4일(일) 오전 11시30분 광주 호성웨딩문화원 2층 해피홀.

▲서장석씨 장남 증원군 장상열(데미화랑 대표)씨 장녀 예준양=6월4일(일) 오후 3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외교센터 12층 리더스클럽.

▲고홍석씨 장남 훈군 황영성(서양화가)씨 차녀 지은양=6월4일(일) 낮 12시30분 서울시 강남구 정담동 호텔프리마 3층 그랜드볼룸.

▲정안석씨 장남 재호군 선병완씨 장녀 성희양=6월4일(일) 낮 12

시 금호생명빌딩 3층 금호컨벤션웨딩홀 크리스탈홀.

▲박형순씨 차남 김기현군 주선자씨 3녀 사경리양=6월4일(일) 오후 1시 금호생명빌딩 3층 금호컨벤션웨딩홀 크리스탈홀.

알림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상담=24시간 전화 상담(1588-9191) 월~금 오전10시~오후4시 일반 면접 상담(가족문제, 자녀문제, 가정폭력, 자살 등) 사전예약 062-223-919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둘기가족폭력상담소 무료상

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동창·동문회

▲목종·고 재광 동창회(회장 임동호) 제 29차 정기총회=6월1일(목) 오후 6시30분 오케라하우스 컨벤션홀, 236-3399

▲광주·전남 영암구림초교 제 58회 전반기총회=6월3일(토) 오후 5시 산천왕토로리 진흥구이 223-5165

▲전남대 간호대 동창회 정기총회=6월3일(토) 오후 4시30분 무등파크호텔 4층 다이아몬드홀.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총동문 가족축마당=6월4일(일) 오전 10시 대운동장. 011-9622-9707 ▲조대부고 제 23회(회장 조철호) 체육행사=6월4일(일) 광주충효본

교 운동장. 017-601-1303 ▲광주 사대부중 제 4회(회장 전성수) 동창회=6월4일(일) 오후 7시 이가식당.

▲재광 목포 공립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성기) 정기총회=6월8일(목) 오후 6시30분 삼복회관 4층. 682-7766

증친회

▲진양(진주)하씨 광주 수오회(회장 하준택) 월례회=6월3일(토) 낮 12시 빅마트 풍암점 증친회 사무실. 011-607-3369

▲연안차씨 증친회(회장 차호철) 광주전남 지부 정기총회=6월 3일(토) 오전 11시 신성식당 232-0177

향우회

▲재광 영암군 향우회 제 57회(회

장 박임진) 정기총회=6월 3일(토) 오후 4시30분 메리어트웨딩홀. 011-604-8843

▲재광 곡성군 삼기면 향우회(회장 김재정)=6월4일(일) 오후 7시 두암동 예술영양물숯밥 266-5566

모집

▲월산동 성당 자원봉사자 모집=독거노인 방문 각종 봉사 활동 참여자 모집. 월산동 성당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369-7005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7시부터 수장초 운동장 017-612-7695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중학교 1~2학년 대상, 숙제 지도·보충심화학습·문화·예술·스포츠, 부모 간담회, 가족캠프, 무료급식, 건강관리, 생활일정관리, 학기중 평일 오후4시~밤10시까지 운영 225-7224

▲초·중·고 과정 무료 학습·교사 모집=월~금요일 오후7시~10시

30분 광주시 동구 계림동 사랑의 교실, 교사 모집(국어·영어·과학·사회·도덕 과정) 223-8529, 011-9712-4316

▲한국문화센터서광주지부(원장 정혜영) 회원 모집=오페션·커피·칼트·개량한복·손뜨개·꽃꽂이·아동미술·포크아트·가족공예 등, 광주시 서구 내방동 구 신학대 사거리 지하철 쌍촌역 4번 출구 375-7178, 011-640-2559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 회원 모집=통일 쌀 보내기와 못자리용 비닐 보내기 등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분 431-0035

▲Philo통기타 동호회=40세 이

상 남녀, 매월 1회 정기발표회, 초보자도 가능 019-660-3388

▲푸른학당=오전반(검정고시반·초등과정), 오후반(초등반·기초영어반), 야간반(초등반·중등반·고등반) 광주교육대 맞은편 529-1188

부음

▲곡희선씨 별세 덕인·덕의·덕성(감초탕 한의원)·덕훈씨 부친상 구민회차 빙부상=발인 1일(목) 무등장례식장 201호 515-4488

▲송계심씨 별세 박부길·부성씨 모친상 오동규·이경선씨 빙모상=발인 1일(목) 무등장례식장 203호 515-4488

넓고 평안한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구 초전) 대표: (062) 515-4488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기적남묘특별분양 대표: (062) 521-1100